

社說

社說

惡質犯罪의 處斷

最近의 社會的惡現象

一

階級가 붕괴되고 나고 貯藏物을 獨取하고 市場에 放出함으로 莫大한 利益을 圖設함으로써 一般 階級의 廢物을 次지 못하고 있다고 詐稱報告하여 이익을 獨取하여 數千萬圓의 利益을 獨取한 것은 昨報한바 美軍政의 美人軍政官들이 아직도 朝鮮의 實情에 어두울 뿐이라 通話關係로서 執務를 不便하고全體에서 機關에 執務하는 朝鮮人職員은 軍政을 輔佐한다는 義從

# 最高規範最終審議

混亂에 不安  
 定에로 停滯  
 해서 建設은  
 一路 遲延한  
 것이 全民族의  
 大略意見 일  
 十五日には聖明書院과 吳興  
 輸送委員會李君、病院의 衛生

三選、今日聲明發表  
 文字에 多少修正은  
 全都通過되었으  
 며 臣民主議院의 使命과  
 性格을 究明하는 聖明書二  
 國圖中에 있는 波蘭人勞働  
 者의 接待及 擴張所 建設에 充  
 當하기 爲한 것이 이라고 한다  
 그리고 最近二十日間 英國  
 聯合會聯合會 救濟物資

議院

院請

對南 正式發表하기를 뜻하  
다. 다만 問題는 十五都  
四局長의 選定인데, 大回會  
議에서 協議할 것으로 보이며,  
委員長에 是李承晚博士, 副  
委員長에 金九主席과 金奎  
植博士中에 一名, 그 다음은  
粗線로 民主院院會, 連  
續開會  
對南 意의 代表機關(三三)  
出發할 非常國民會議의  
議案에 依한 最高政務委員의  
粗線로 民主院院會, 連

材料 諸修理後 典用 機械類 等  
이다.

**事實無根이다**  
原子彈 D.P.A. 事件  
【倫敦 二日發 A.P. 合同】  
左의 色彩이 近日 是通刊「유

印度에海軍叛亂

一 一般의暴動도漸次擴大

華盛頓二十四日UP發船科에到着한「이판」使節團  
目下監視中인 불메이의代表는 廿二日蘇聯「이  
판」外交官邊境에到達한 會談이目下進行되고있  
다. 俄國에依하야「印度海軍」과「會談」하되「이판」官  
僚의總數가 이에對相「철라바」氏는「스페인」  
一般暴動의擴大로「元帥」와會見後廿二日에

三三紀念

三三紀念이란 三三紀念의 最高의 國際  
全民族의 最高의 國際 三三紀念의 最高의 國際  
左右의 理念이 三三紀念의 最高의 國際

三一紀念前記

「三一記念」이란 가정嚴肅하고 가정神聖한  
全民族의 最高의 「國魂」이다. 이國魂에는  
左右的의 理念이 있을수 없고 階級의 分野가 생길  
수 없다. 「그레이트이슬람」의 「記念行事」를 알  
고 또다시 分立의 前途를 본다. 是非는 어  
디에 있는가? 「三一運動」의 自體에서 果然派  
爭을 云々할만할 歷史的, 理論的 根據가 있  
는가? 食少存繁으로 疲勞한것이 아니라 目不  
能已의 情懷는 저절로 이글을 쓰게 한다.

大韓의自主獨立

日本의 強作의 ① 本社主幹 薛

을 叱라, 揶揄와 英國의 三C政策과, 幣鑄 早

外部로 두리, 內部 界政局의 大變調을 暗示

이르러, 部分으로 두리 하는 바 잇서, 內外情勢는 文

肉이 잇따다. 庚戌 字 그대로 暴亂前夜의 光

已未까지의 十年 景이 엮은 것이다

列強의 角逐과 相聞은 明白

# 蘇聯의 對滿態度에

美國은默認한수업이되리라

【華盛頓二十二日發S.F.合同】「외신」에「호스틴·호스틴」紙上二十二日附近說에서蘇聯의對韓政策은美蘇關係를害할게할憂慮가있다

反되는것이다 이門戶開放主義와中國의領土主權을侵犯하는美國今日の極東政策의基調을만드는것이

다 이問題는美蘇關係를

華北에美海軍

蘇軍駐滿繼續

**奉天地區蘇軍司令官의**

P(愛朝鮮)의 司令官은 平壤에 將은 美國 通信員과의 會見席上에서 하이駐屯하고잇는 蘇聯軍의 撤退兵隊와其他美國가 遲滯된것은 華北에 露顯 關係가 잇는것을 最竟, 前代締有의 世界大 戰을 勝發시키어 前後四 十年을 안 피(血)로州 政를 執了다. 弱肉強食의 殖民政策과 不睦不厭의 排取方式을 이같은 樣式으로 破綻을 보았다. 그리 運에 달치아

信地至一點、方途至一路、行裝

本誌主幹 薛  
 英國의 三C政策과 密露 三C政策의 瓦礫은 世  
 部으로 內部 大變調을 示  
 三의 生民은 하신바이시 內外情勢는 光  
 十 庚戌 景이였는것이다  
 列強의 角逐과 相聞은 明  
 本誌의 十年 光

中央軍對某外國軍の

衝突事件을否認

情報部長吳國楨氏

重慶廿四日UP發朝鮮 情報部長吳國楨氏

三日中央軍과 어느外國軍 사이의

公報의 報道를全然根據하는것이아

民公報는 今日同報道에 關한訂正

의中國에對한獨占의特一 것을許容할

駐滿日繼續

『全民族의 모든 제피(自血)를  
速結하여 一時에 奔流』

7월 05 國의 悲 恨의 束 하리다 史와 傳	民族이라 모순 邦家의 派爭과 不睦하다	7월 05 世界를 向하 自主獨立을 宣 未 獨立運動이 癸三月一日이다	大韓의 大敵이 日本이다
國의 悲 恨의 束 하리다 史와 傳	民族이라 모순 邦家의 派爭과 不睦하다	7월 05 世界를 向하 自主獨立을 宣 未 獨立運動이 癸三月一日이다	大韓의 大敵이 日本이다

고도 獨立萬歲！ 至今도  
귀에 錄々하다 ▼是也라

一君官이여하<sup>1</sup> 普同說<sup>1</sup>  
 外 際하야 當時의先發와  
 同僚가 몇々俱入 當時의  
 進級이다 二그러나 當時의  
 의 義烈先輩가 多數生存  
 하서여 七十이요 八十이  
 요 老當壯으로 그손에  
 다시 太極旗를 들로니일  
 지니 그무렵 哈르라니巴  
 未獨立宣言記念 國民大立  
 해 그대도 나도官學生도  
 爲은學生도 합쳐서慶祝하

수설  
子孫이 없는 初喪  
마당은 쓸쓸하다  
子孫이 없으니 同甲

**설**  
 子孫이 첫째로 慶賀에 들어  
 孫이 첫째다. 子孫이 자랄  
 이요. 子孫이 有勢面이다  
 要求. 三三에 모은 徒不參을  
 要求. 宜理由로. 未成行列이  
 政治의 分裂로. 未成行列이  
 政治의 分裂로. 未成行列이

新領生學士07 此等惡黨  
蜜과 危險性이 있는곳에  
參加시키고싶지만타는 老

憂心을 可賀이나 放心을  
라 國慶慶祝日을 구하여  
示威行列이라고 言ふ 最末迄  
危險性도 毫無 賣子女  
도 내보내라 賣子女도 내  
보내려다 〓 賤者도 已  
求三當時인 口肉乳其  
의 學生이었다 아버지  
先生이, 형님이萬歲를 부  
르니 나도따라서 萬歲를  
부르다 〓 萬三도 부니 先  
생이 萬歲를 부르다 〓



